

1932년 통도사 김구하(金九河)의 금강산 여행

- 『금강산관상록(金剛山觀賞錄)』을 중심으로 -

이경순*

• 목 차 •

- I. 머리말
- II. 『금강산관상록』과 금강산 여행의 개요
- III. 김구하가 마주친 ‘모던 금강’
- IV. 1932년 금강산 불교의 장면들
- V. 맺음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大覺思想』 제37집 (2022년 6월), pp.69-104.

한글요약

김구하(1872~1965)는 일제 강점기 대본산 통도사의 주지이자 불교계의 지도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구하는 근대 불교계의 중요 인물이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친일과 항일 행적 논란에 집중되었고, 전 생애와 행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구하에 대한 다각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글에서는 김구하의 1932년 금강산 여행 기록인 『금강산관상록(金剛山觀賞錄)』에 주목하였다.

김구하가 금강산을 여행한 1932년은 금강산 주변에 철도를 비롯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근대적 대중관광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금강산 여행의 오랜 전통 속에서, 김구하의 여행기는 130여 일에 이르는 장기간의 기록이라는 점, 그리고 근대 불교인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구하의 기록에는 1930년대 초 금강산의 변화 모습과 금강산 주요 사찰의 양태, 마하연의 중창, 백성욱의 수행결사, 전통불교와 세속화된 불교의 병존, 금강산 비구니의 수행 등이 담겨있다. 이러한 기록은 일제의 관광정책으로 대중관광의 일개 코스 전락하거나 박제화된 고대의 유물로 취급받던, 금강산 사찰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생동하는 금강산 불교를 보여준다. 김구하는 근대 금강산 불교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한 중요한 기록자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금강산, 금강산 불교, 김구하, 금강산 사찰, 금강산관상록, 금강산관광

I. 머리말

김구하(1872~1965)는 일제 강점기 대본산 통도사의 주지이자 중앙 불교계의 리더로 활동한 인물이다. 1911년부터 1925년까지 대본산 통도사 주지를 맡아 통도사를 손꼽히는 본산 사찰로 만들었으며, 중앙 불교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30본산연합사무소 위원장(1917~1918), 중앙 학림 학장(1918)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이후 김구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고¹⁾ 일제 강점기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²⁾ 그러나 최근 독립운동 자금 지원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면서 항일 독립운동에 기여한 인물로 재평가 되었으며, 근대적 불교개혁과 관련된 행적도 주목되고 있다.³⁾ 이렇게 김구하에 대한 연구는 불교계 지도자로서의 공적 활동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이외에도 김구하는 일생에 걸쳐 다수의 시와 문장을 쓰고, 사찰 현판 등에 필적을 남겼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 분석과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김구하가 1932년 회갑의 나이에 저술한 『금강산관상록(金剛山觀賞錄)』에 주목하

-
- 1) 1923년 4월~10월 『매일신보』에는 김구하의 ‘비행’, ‘횡령 혐의’, 통도사내 분규 등이 몇 차례 보도되었다. 1910년대 중앙 불교계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던 김구하는 이로 인해 1920년대 중반 이후 통도사 주지에서 물러나고 중앙 불교계에서도 이전과 같은 지위를 얻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2) 김구하를 친일승려로 지목한 대표적 연구자는 임혜봉이다.(임혜봉, 『친일승려 108인』 청년사, 2005) 이후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 예정이었지만 문도와 후손의 이의제기로 친일인사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 3) 『鷲山 九河大宗師 民族佛教運動史料集』, 영축총림 통도사, 2008;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집, 2011; 김수아, 「일제강점기 근대한국불교를 위한 김구하의 개혁정신과 방향」, 『문화과 종교』 제22권 4호, 2017; 김광식, 「구하 독립운동의 자료, 개요와 성격」, 『영축산의 구하 천보와 오대산의 한암 중원』, 한국불교학회 추계특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고자 한다. 필자가 김구하의 『금강산관상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 저술이 가지고 있는 근대 금강산 여행기록으로서의 가치 때문이다. 『금강산관상록』은 1932년 4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130여 일에 이르는 기록으로, 1930년대 전반 금강산에 대한 장기간의 여행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여행 주체가 승려라는 점도 이 기록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전까지 금강산 여행기록에서 승려는 유람의 주체가 아닌 주변적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⁴⁾ 김구하의 기록은 원숙한 불교인의 시각에서 금강산과 불교사찰에 대해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채를 띠는 것이다.

최근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 기록을 주목한 두 편의 연구가 있었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김구하의 기록을 소개하고 문학적 관점에서 김구하의 의식을 분석하거나,⁵⁾ 근대 금강산 관광의 사례로서 다루었다.⁶⁾ 이에 필자는 김구하의 여행기록의 특징에 주목하여 1930년대 초반 금강산의 변모와 근대 금강산불교의 일단을 보여주는 역사 사료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금강산관상록』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금강산 불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근대 금강산 불교의 위상을 확인하고, 『금강산관상록』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보다 선명하고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이경순, 「조선후기 사족의 산수유람기에 나타난 승려 동원과 불교 전승 비판」 『한국사상사학』 45, 2013, pp.388-399.

5) 최두현은 『금강산관상록』의 초본이라 할 수 있는 통도사에 소장된 『金剛山錄抄案』을 고찰하면서, 종래 승려의 금강산 관상에 대한 시문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김구하의 기록이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노정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주로 시를 분석하면서 김구하는 금강산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안식처로서 인식했다고 기술했다. 최두현, 「근대 통도사 승려들의 시문 창작과 그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제58집, 2021, pp.452-464.

6) 박부원은 철도를 통한 이동 등 근대적 관광을 보여주는 예로서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을 다루었다. 박부원, 「금강산 歷史文化路 개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문화컨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pp.121-130.

II. 『금강산관상록』과 금강산 여행의 개요

김구하가 금강산으로 향한 것은 1932년 4월 17일이었다.⁷⁾ 1932년은 김구하가 61세 되던 해로, 여행의 한 달여 전인 1932년 3월 13일, 통도사에서 김구하의 회갑연이 열렸다.⁸⁾ 따라서 금강산 여행은 김구하의 회갑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다.

우리 축산스님은 도와 법을 두루 갖추었고 문장력이 뛰어나며, 후덕하고 소박하여 사람들이 禪家の 큰 어른으로 부르고 있다. 여러 해 사찰의 일을 보았으므로 몸을 빼내어 쉴 겨를이 없었던 차에, 올해가 마침 육십일세 환갑인지라 피서도 하고 경치도 구경하고자 장안사로 와서 화엄각에 머물렀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오지 않는 청량한 날을 기다려 빵, 감자 등의 끼니와 붓과 묵을 바랑에 넣어 둘러메고 일친 봉우리의 꼭대기에 올라 일만 골짜기를 그윽이 굽어 보았다. ... 나 또한 심할 정도로 산수를 좋아하여 네 번이나 스님과 더불어 금강산에 들어가 함께 외금강과 내금강의 일만 이천봉을 남김없이 둘러보았다.⁹⁾

『금강산관상록』 서문에 해당하는 월봉계순(月峰桂旬)의 「관상록기」에는 여행의 목적이 드러나 있다. 월봉은 김구하의 금강산행이 환갑을 계기로 이루어졌고 장안사에서 여름을 보낼 예정이었다고 하였다. 월봉은 김구하와 동행하여 금강산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장안사에서 하안거를 함께 하였다.

이때 나는 영축산에 이르러 세존 사리탑에 예배드리고 축원을 기원하였다. 축산스님이 풍악산으로부터 돌아오니 늙은 석랑(石郎)을 비롯하여 차례

7) 『금강산관상록』에 표기된 월일은 음력 날짜로 판단된다.

8) 최두현, 앞의 논문, p.456.

9) 月峰桂旬, 「觀賞錄記」, 영축총림 통도사, 『금강산관상록』, 정보문화재연구원, 1998, pp.5-8.

대로 배알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는데 그때 얼굴을 보니 위엄이 있고 법도가 남달랐다. 아마도 남보다 빼어나고 특별한 것을 명산이 주었으리라. 이에 유상록을 살펴보니 가히 고요한 물결 속에서 진주를 주운 듯하고 난초의 향기로 엮어 놓은 것이었다. 며칠 지나 발문 쓰기를 청함에 사양할 바를 몰라 ‘예.’라고 답하였다.¹⁰⁾

위와 같이 김구하는 마침 통도사를 찾은 백최승(白最勝), 즉 당대 문장가로 알려진 백초월(白初月, 1878~1944)에게 유람 기간에 썼던 글을 보이며 발문을 청했다.¹¹⁾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백초월에게 유람록의 발문을 청했다는 것은, 김구하가 유람 기간 동안에 여정을 기록하며 책으로 엮을 것을 염두에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발문에서는 금강산 유람의 감동이 식기 전에 책으로 엮으려는 김구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본인의 회갑을 기념하는 의미로 『금강산관상록』의 완성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관상록』에는 여행 기간을 기록한 일기형식의 글이 28편 실려 있다. 집중적인 유람 기간에는 매일 글을 썼고, 휴양 기간이나 5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하안거 기간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김구하의 유람기록이 책으로 엮어진 최초의 형태는 『금강산록초안(金剛山錄抄案)』으로 서문인 월봉의 「관상록기」,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노정과 관상시, 그리고 백최승의 「발문」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²⁾ 여정과

10) 白最勝, 「跋文」, 앞의 책, pp.411-415.

11) 1998년 『鷲山文集』과 함께 번역, 출간된 『금강산관상록』은 『금강산록초안』의 내용을 근간으로 1998년 출간 당시 月下의 서문과 月把의 발문을 앞뒤로 붙였고, 본문인 일기형식의 기록은 「金剛山路程及觀賞」으로, 칠언 절구의 기행시는 「金剛山景處絕韻」으로 편집하였다. 시 부분은 김구하의 시모음인 「鷲山詩選」과 김구하, 최월봉, 강대련의 「次韻詩」, 금강산에 관한 「歷代名人詩選」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閔漬의 「金剛山楡岾寺事蹟」이 추가되었다. 즉 1998년에 발간된 『금강산관상록』은 1932년 『금강산록초안』의 내용을 편집하고, 역대 명시와 유점사 사적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12) 『金剛山錄抄案』,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최두현, 위의 논문, p.453.

감상을, 국한문혼용으로 기록한 문장과 칠언절구의 한문 시로 엮고 앞뒤에 기(記)와 발문(跋文)을 덧붙여 책의 형태를 갖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김구하가 쓴 본문은 15세기 이후 여행기록으로 많이 채용된 일기체의 양식으로¹³⁾ 조선시대의 유람록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다.

4월 중순에 시작한 여행기록은 그해 9월 1일 통도사로 귀사하면서 끝나는데 이것은 130여 일의 기간에 이른다. 이렇게 노년에 이루어진 장기간의 금강산 여행기록은 17세기 후반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의 『산중일기』를 떠오르게 한다. 강원도 원주지역의 유학자 정시한이 금강산을 여행한 것은 1687년으로 당시 나이가 63세였고, 여행 기간은 78일간이었다.¹⁴⁾ 물론 이 기간에는 관동지역 유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구하의 여행은 도보나 말에 의지하여 이동하던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1930년대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장기간의 여행이었다. 이렇게 긴 여행이 가능했던 것은 김구하가 승려였기 때문이다. 금강산에 산재한 사찰들에 머물며 유람을 하고 여행 기간 중 하안거를 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까지 유람기록을 남긴 것은 거의 사대부들이었다. 물론 18세기 후반이후 중인, 평민들도 금강산을 유람하고 시와 기문, 가사 등의 기록을 남겼지만 유람록을 남긴 승려는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승려의 금강산 유람록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조선시대 법종(法宗, 1670~1733)의 「유금강록(遊金剛錄)」 한 편에 불과하다.¹⁵⁾ 조선시대 유람록의 저자는 대부분 사대부였으며 유교적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이러한 기록에는 불교전승에 대한 비판과 왜곡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김구하의 유람기록은 전통적 유람록 형식을 띠었지만, 그 내용은 근대

13) 이정현, 「여행일기, 일기의 등장-15세기 후반 일기체 기록의 등장에 대해서-」, 『영남학』 76, 2021 참조.

14) 이경순, 「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間 인식」, 서강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pp.86-92.

15) 法宗, 「遊金剛錄」, 『虛靜集』 권 하.

를 대표하는 불교인의 시각을 담았다는데 그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구하는 금강산 내에서 머물면서 네 번에 걸쳐 집중적인 유람을 하며 금강산을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내금강 → 외금강 → 내금강 → 해금강 → 안변지역의 순이다.

<표 1> 1932년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 일정

날짜	일정	숙소	동행 및 만난 사람
4.17	통도사 출발-양산읍 물금역-경성역 (경원선)-철원역-금성역(금강선전철)	洪福善의 여관	
5.2	금성역-내금강역-여관-장안사	惟一여관 (李運虛)	錦雲화상 장안사 주지 玄懿龍
5.5	장안사 지장암, 명경대, 금강문, 마의태자 유적-영원암	3~4일 장안사화각 5일 영원암	진주 靑谷寺 前주지 崔月峯과 순례. 영원암 주지 霜月, 서울의 비구니 洪祥根(100일기도)
5.6	망군대-수렴동-도솔암터-白塔洞-안양암 장안사-만폭동-백화암터-표훈사	표훈사	전 주지 최원허, 秋山선객
5.7	만폭동-보덕암-진주담-화룡담-마하연사	마하연사	마하연 주지 李華應
5.8	만회암-수미암-영랑봉	수미암	淸嵐선객
5.9	강선대-선암-내원통암-수미팔담, 만절담, 태상동, 청량뢰, 우화동, 적용담, 강선대, 구가연-만폭동 북천곡-표훈사	표훈사	청룡선사, 龍澤수좌, 내원통암 高秉雲
5.10	표훈사-정양사-돈도암-청련암-신림암(비구니)-김서응 화상 별장	김서응 별장	魯弘濟, 김서응 화상 (월봉화상의 친한 벗)
5.11~5.19	장안사 휴양	장안사	

5.20-21	장안사-외무령-유점사	유점사	통도사 性學선사. 유점사 주지 雲岳화상, 李雲峰선사
5.22	유점사 사적 열람		범무 文昌晏
5.23	반야암	유점사	監務 鄭雲宣, 洪秀庵선사
5.24	중내원암-용암, 칠성암-미륵봉	유점사	정운선 안내, 李尙祐(해인사)
5.25	칠보대 근처 암자-은선대-12폭포	칠보대 근방 비구니암자	龍海, 鞭牛, 正念(노비구니)
5.26	칠보대-내무령-사선교-찾집-묘길상암-불지암-마하연-표훈사	표훈사	
5.27	장안사	장안사	월봉선사와 함께 염불, 하안거
6.20	옥천암 약수	장안사	
7.17	장안사에서 하안거 마치고 표훈사로 이동	표훈사	
8.5	표훈사-비로봉-마의태자능묘-비사문령-구룡연-금강문	금강문 찾집	秋山선사, 龍澤수좌, 상우 사미
8.6	선담-보광암-신계사	신계사	소년시절 죽마고우 李日眞
8.8	신계사	신계사	
8.10	신계사 각 암자 신계사-상운암-대성암- 집선봉 아래 동석동	신계사	대우화상, 혜담선사, 상우사미, 세진사미, 石虎奇, 宋雪牛
8.12	혜담화상 私家		
8.13	신계사-문수암-신계사	신계사	
8.15	옥류동-구룡연 선담~금강문~옥류동~구룡연~팔담	신계사	대우선사, 두 사미, 昌訓, 世震, 尙祐
8.16	한하계-수귀양천석-관음폭-문수교-육화암표석-만상계- 만상정 점심/구만물상 입구-구만물상-대심곡-안심	신계사(?)	대우화상, 두 사미

	대-금강문-천선대-옥녀세두분수-온정리-극락고개		
8.23	신작로로 고성군 고개-삼일포, 사선정-고성읍-(자동차)-해금강(금강문, 수중 만물상)-현종암-고성읍	大東旅館	대우화상, 두 사미, 金應惺
8.24	온정리	신계사	慈藏館주인 金昌淳
8.25	외금강역-장전역-고저역-총석정-고저항-관동여관	關東旅館	원산 학생단체, 부산 신도단체
8.26	안변역-삼방협-약왕교당	약왕교당	약왕교당 性月선사
8.27	경성도착	경성	총독부 사회과장 俞萬兼
9.1	통도사 도착		

<표 2> 1930년대 관광안내 리플릿에 소개된 금강산 관광 일정

구역	일정 (예상비용)	탐승 순서	숙박지
내금강 탐승	1일 (11원)	경성역-철원역-내금강역-장안사-명경대-표훈사-만폭동-마하연-묘길상-장안사-내금강역-철원역-경성역	열차 숙박
	2일간(1) (12원50전)	경성역-철원역-내금강역-장안사-명경대-망군대-장안사-표훈사-정양사-만폭동-묘길상-장안사-내금강역-철원역-경성역	장안사
	2일간(2) (12원50전)	경성역-철원역-내금강역-장안사-표훈사-만폭동-마하연-비로봉-비로봉-구성동-봉전(자동차)-말휘리역-철원역-경성역	구미산장
외금강 탐승	4일간 (19원)	경성역-안변역-고저역-총석정-고저역-외금강역-온정리-(자동차)육화암-한하계-구만물상-신만물상-온정리-신계사-옥류동-구룡연-온정리-해금강-온정리-외금강역-안변역-경성역	온정리
	3일간	경성역-안변역-외금강역-온정리(자동차)육화암-구	왕복 열차

	(15원)	만물상-육화암(자동차)-신계사-옥류동-구룡연-온정리-외금강역-안변역-경성역	숙박
내외 금강 탐승	3일간 (13원 50전)	경성역-철원역-내금강역-장안사-표훈사-만폭동-마하연-묘길상-비로봉-구룡연-신계사-온정리(자동차)-육화암-구만물상-육화암(자동차)-온정리-외금강역-안변역-경성역	구미산장
	4일간(1) (22원 50전)	경성역-철원역-내금강역-장안사-표훈사-만폭동-마하연-장안사-내금강역-말휘리역-온정령-구만물상-신만물상-온정리-해금강-온정리-신계사-구룡연-상팔담-온정리-외금강역-고저역-총석정-고저역-안변역-경성역	장안사 온정리 열차 숙박
	4일간(2) (20원)	경성역-철원역-내금강역-장안사-표훈사-만폭동-마하연-비로봉-구성동-봉전(자동차)-온정령-구만물상-신만물상-온정리-신계사-옥류동-구룡연-온정리-해금강-온정리-외금강역-안변역-경성역	구미산장 온정리 열차 숙박
	4일간(3) (16원 50전)	경성역-안변역-고저역-총석정-고저역-외금강역-온정리(자동차)-육화암-구만물상-신만물상-온정리-신계사-옥류동-구룡연-비로봉-마하연-만폭동-정양사-표훈사-장안사-내금강역-철원역-경성역	열차 숙박 온정리 구미산장
	5일간 (23원 50전)	경성역-철원역-내금강역-장안사-명정대-표훈사-정양사-만폭동-마하연-비로봉-내무재령-은선대-유점사-개간령-백천교(자동차)-해금강-온정리-신계사-옥류동-구룡연-상팔담-온정리(자동차)-육화암-구만물상-신만물상-온정리-외금강역-안변역-경성역	마하연 유점사 온정리 온정리

(1936년 조선총독부 철도국 발간 금강산 관광 안내 리플릿에서 발췌)

위의 <표1>과 <표2>를 비교하면 김구하의 여행기록이 갖는 특징이 분명히 드러난다. <표1>은 김구하의 여행 일정을 정리한 것이고 <표2>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안내한 금강산 관광코스, 숙박, 예상 비용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 관광객은 장안사 구역과 온정리 구역의 여관 및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비로봉 바로 아래 있는 구미(久米) 산장을 이용했다. 이에 반해 김구하는 여행기간 동안 일반 여관이나 개인 집, 찻집에 투숙한 경우는 5일 정도에 불과했다. 대부분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 신계사 등 금강산 4대 사찰을 여행거점으로 삼아 머물면서 금강산 각지의 사찰과 명승을 집중적으로 유람하였다.

철도국이 안내한 여행코스에서 거치게 되는 사찰은 3~6개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김구하는 그의 관상록에서 31개의 사찰과 암자를 소개하였다. 또한 김구하의 기록에는 금강산 사찰에 주석하는 승려들, 유람온 승려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 30여 명이다. 김구하는 ‘가는 곳마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였다.¹⁶⁾ 오랫동안 대본산 통도사와 중앙 불교계에서 책임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인맥을 넓혔음을 알 수 있다.

김구하는 금강산 사찰을 방문하면서 중요한 손님으로 큰 환대와 예우를 받았다. 각 사찰의 주지와 승려들은 김구하에게 사찰의 형편을 설명하고, 길을 안내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썼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김구하가 여행할 동안 길 찾거나 숙박은 어떤 곤란도 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금강산 승려들은 불교계 명사인 김구하의 글씨를 받고자 하였으며, 이에 김구하는 옥천암, 표훈사 등에 편액과 주련 글씨를 남기기도 했다.¹⁷⁾ 8월 25일 신계사를 떠날 때는 대중들이 일주문 밖에까지 나와 송별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하였다.

이렇게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은 김구하가 승려이자 불교계 명사라는 여행자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으며, 단 며칠간 금강산에 머문 일반 관광객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집중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금강산에 대한 관찰 내용이 포함될 수 있었다.

III. 김구하가 마주친 ‘모던 금강’

16) 『금강산관상록』, pp.78-79.

17) 위의 책, pp.124-125.

김구하는 금강산을 탐험하면서 금강산이 본래 지닌 선계로서의 아름다움과 수행의 본처로서의 성스러움을 찬탄하였다. 그와 동시에 김구하는 금강산의 1930년대를 목격한 인물이기도 했다. 김구하가 여행한 1932년은 금강산과 그 주변에 큰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다. 그 변화는 금강산이 근대 관광지화 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¹⁸⁾ 또한 일본이 금강산을 식민지의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선전하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시기이기도 하다. 금강산 국립공원화를 위해 총독부 주도로 1930년 금강산보승회가 조직되고, 1932년에는 재단법인 금강산협회가 설립되면서 금강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¹⁹⁾ 이에 따라 금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광객이 급증하였다.

금강산과 그 주변의 변화는 철도의 개통이 큰 계기가 되었다. 1914년 경원선 철도가 완공되고, 곧이어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서 금강산 관광단이 조직되면서 금강산에 대한 근대 단체관광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일본과 한반도 내 철도공사에 관여했던 구메 다미노스케(久米民之助)가 1919년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를 설립하고 철원과 금강산을 잇는 전기철도 건설에 착수했다. 그 결과 1924년 8월에 철원 - 김화간 구간을 완성하고, 1931년 7월에는 철원에서 내금강역까지의 전 구간을 확장, 개통하였다. 이제 경성역에서 출발한 여행자가 7, 8시간 만에 내금강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²⁰⁾ 또한 총독부 철도국은 경원선의 안변역에서 분기하여 흡곡(歙谷)까지 이어지는 동해북부선

18) 이경순, 『금강산 가는 길: 조선총독부 철도국 발간 금강산 관광안내 지도 연구』,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2020, pp.8-16.

19) 금강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지영, 「일본제국의 ‘국가풍경’으로서의 금강산 생산-금강산국립공원 지정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33권 1호, 2021; _____, 「일제의 금강산국립공원 지정 논의로 본 ‘제2의 자연’으로서의 금강산 생산」, 『대한지리학회』 제56권 제3호, 2021.

20) 정재정, 『철도와 근대서울』, 국학자료원, 2018, pp.214-216.

을 1929년 개통한데 이어, 1932년에는 외금강역과 고성까지 전 노선을 완공했다. 경성에서부터 연결된 철도가 내금강, 외금강 안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된 상황이었다. 5월에서 10월의 여행 시즌 중에는 일요일과 축제일의 전날, 경성에서 야간 직통열차를 타고 환승 없이 내금강역과 외금강역에 도착하여 오전에 곧바로 탐승을 시작할 수 있었다.²¹⁾ 이러한 철도노선의 확장으로 학교의 수학여행단이나 지역, 단체, 신문사 등이 조직한 단체 관광단이 금강산으로 향하게 되었고 탐승객의 증가를 가져왔다. 1926년에 금강산 철도를 이용한 승객은 881명이었지만, 철도가 내금강역까지 확장된 1931년에는 탐승객이 15,219명, 1938년에는 24,892명으로 늘어났다.²²⁾ 철도는 1930년대 금강산 대중관광이 본격화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철도의 개설과 함께 금강산 관광 열기는 전국에 퍼졌고 금강산 주변 철도노선이 완공된 시점인 1932년에 마침 환갑을 맞은 김구하가 금강산 유람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즉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 배경에는 금강산 주변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전국적인 금강산 관광 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32년 통도사를 출발한 김구하는 금강산까지 철도를 이용했다. 다음은 김구하가 통도사를 출발하여 금강산에 도착한 기록이다.

임신년(1932) 4월 17일 통도사를 출발하였다. 양산읍을 지나서 물금역에 도착하여 역장과 요금을 교섭하니, 역장은 단체의 경우에는 4할, 개인왕복은 3할, 편도는 할인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내금강역까지의 요금은 11원 68전이였다. 경성역에 도착하였으나 벼들을 찾아보지 않고 곧바로 京元線 열차를 바꾸어 타고 철원역에 도착하니, ‘금강산전철도’라는 글씨를 철

21) 일반적으로 금강산 관광은 5월에서 10월까지 성수기였지만 근대 알피니즘의 소개와 스키의 붐으로 1930년대 겨울 산행도 성행했다. 금강산 겨울 산행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29년이였다. 『朝鮮山岳會員 金剛山突破』, 『朝鮮新聞』 1929.12.30.

22) 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 『金剛山電氣鐵道20年史』, 1940, p.70.

로써 크게 써 놓은 표지와 금강산행 전차를 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인형을 만들어 세워 놓았다. 잠시동안 철원역을 둘러본 다음 전철을 타고 금강산 입구로 향하였다. 잠깐이면 금강산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10여 역을 정차하고 계속 지나갔다. ... 단발령 터널을 통과하였다. 산을 뚫고 길을 만들어 전기를 통하게 한 것이 경상남도 성현터널보다 훨씬 뛰어났다. 또한 굴 안에 전등을 연속으로 밝혀 마치 별들이 펼쳐져 있는 듯하였다. 굴을 지나 길게 굽이진 길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하였다.²³⁾

김구하는 통도사 근처 물금역에서 출발하여 경성역까지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였다. 경성역에 도착해서 곧바로 경원선으로 환승하고 철원역까지 이동하였다. 철원역에서 또다시 금강산전기철도로 환승하여 내금강역에 도착했다. 귀향 시에도 외금강역에서 경성역 환승을 거쳐 물금역까지 철도를 이용했다.²⁴⁾ 원산까지 동해북부선으로 연결된 외금강역은 김구하에 금강산 여행을 온 해인 1932년에 완공되어 있었다. 통도사 인근의 물금과 금강산 왕복구간은 철도만으로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금강산으로 향할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고개인 단발령은 전기철도가 다니는 터널로 뚫려 있었다. 김구하는 이러한 변화를 새롭고 신기한 볼거리로 묘사했다. 단발령에 대한 감상은 다음과 같은 시로도 표현했다.

단발령(斷髮嶺)

예전부터 익히 들었던 그 단발령을	曾聞斷髮嶺
이제 산중 터널 지나 보게 되었네	今見隧山中
그곳으로 가는 길은 비록 달라졌으나	行程雖異變
人跡은 예나 지금 다를 바가 없도다	人跡古今同 ²⁵⁾

23) 『금강산관상록』, pp.31-32.

24) 위의 책, pp.171-172.

25) 위의 책, p.175.

김구하는 단발령 터널의 화려한 조명에 홀린 듯 했다가도 단발령의 옛 명성을 떠올렸다. 조선시대 단발령은 고개에 올라 금강산을 전망하면서 금강산이라는 선계로 들어가는 상징적 통과 코스에 해당했는데, 1932년 김구하는 고개 위가 아닌 터널로 단발령을 지나쳤던 것이다. 이에 대한 감회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인적은 예나 지금이 같다는 말로 변화에 대한 감상을 대신했다.

한편, 금강산 내 새로운 시설과 탐승로에 대한 경험도 김구하의 여행 기록 중에서 찾을 수 있다. 그중 하나가 구미산장의 건설 현장과 내금강-비로봉-외금강으로 이어지는 탐승로에 대한 기록이다.

점심을 먹고 나서 비로봉을 구경한 다음, 동행했던 秋山선사와 龍澤수좌는 마하연으로 돌아가고 상우 사미와 짐꾼과 같이 신계사로 향했다. 비로봉에서 조금 가니 石材로 삼층집을 새로 짓고 있었다. 현판에는 久米山莊이라고 되어 있었다. 다시 5리 가량을 내려오니 신라왕자 마의태자의 능묘가 있었다. 그 근처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여관이 있으며, 여관에서 서쪽은 蓬田, 남쪽은 비로봉, 동쪽은 온정리라고 하였다.

그 곳을 지나 毘沙門嶺을 향하였다. 옛길은 바위 구멍으로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였고 새 길은 나무와 쇠로 만든 것으로 나무 계단 117층과 바로 밑에 쇠다리 26층이 절벽에 걸린 듯이 설치되어 있었다. 실로 위험하고 험한 길이었다. 다리를 절면서 비사문령을 넘어 동쪽을 건너다 보니, 만 길이나 되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 소리가 들렸다. 정신이 다시 맑아졌으니, 그곳이 바로 구룡연이었다.²⁶⁾

이 글에 나오는 구미산장은 금강산협회와 총독부 철도국의 주도로 1932년 비로봉 근처에 건설했던 산장이다.²⁷⁾ 비로봉 근처에 구미산장이

26) 위의 책, p.127.

27) 금강산 철도의 완공 직전 사망한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대표 구메 다미노스케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野浦留, 『毗盧峯頂ニユツテ久米山莊』, 『朝鮮山岳』 2호, p.140, 1932.12. 이 산장은 초기에는 8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으나 이후 1935년경 증축을 거쳐 150명까

생기면서 산 정상에서 숙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 글에 나타난 비로봉에서 구룡연까지 이어지는 탐승로는 1929년경에 신설된 것이다. 종래는 내외금강산을 오가려면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여 산을 넘었다. 이 탐승로의 개설은 금강산 여행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비로봉을 통해 내외금강산을 넘나들 수 있게 됨으로써 이틀 정도의 여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탐승로의 개발은 김구하의 기록에 그대로 드러났다. 1932년 8월 5일, 김구하는 내금강 표훈사에서 출발하여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에 올랐다. 비로봉 근방에서 건설 중이던 구미산장을 목격하고 1929년에 개통된 탐승로를 따라 외금강 구룡연에 이른 것이다.

黛深谷으로 가기 위해 쇠줄을 잡고 칠십오층 돌사다리를 밟고 내려가면 갈수록 더욱 험하였다. 구만물상에서 신만물상으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탐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엷힌 나무들을 헤치고, 쇠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미끄러운 길과 계곡 등을 지나가게 되니 지팡이와 모자와 행장이 모두 장애물일 뿐이었다. 모두를 냇가에 벗어두고 홀몸으로 간신히 오르는 데 한 발자국 오르면 두 발자국 물러나는 느낌이었다. 험하고 위험하기가 내금강의 망군대보다 더하였다.²⁸⁾

금강산의 여러 경치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신만물상 만한 곳은 없으리라. ... 구름사이로 달빛이 비쳤고 소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었더니 무한한 道の 묘미가 저절로 일어났다.²⁹⁾

또한 김구하는 위와 같이 험난한 지형의 만물상 구역을 직접 탐험했다. 만물상은 금강산이 산악미를 대표하는 명승으로 기암괴석이 연속되

지 수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新裝하는 金剛山—無電設備·道路擴充, 비로봉 구미산장도 증축한다」, 『매일신보』 1935.5.11.

28) 앞의 책, p.158.

29) 위의 책, pp.158-160.

어 장관을 이루는 곳이었다. 이 지역은 여전히 거친 험로였지만 신설된 탐험로를 이용하였다. 환갑의 노구를 이끌고 금강산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기암괴석이 가득한 만물상 절경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김구하가 금강산을 유람한 시점에 동해북부선의 외금강역, 고지역, 고성역에서 외금강의 주요 명승으로 연결되는 자동차도로가 건설되고 있었다.³⁰⁾

8월 16일, 대우 화상과 두 사미를 동반하여 만물상으로 향하였다. 때마침 극락현 너머에 새로 가설된 湍井里霞橋를 준공하여 개통식을 하고 있었다. ... 觀音瀑과 文殊橋를 지나니 신작로가 나왔다. 다리도 신식으로 만들어 굉장하였다. 자동차 종점까지 나아갔더니 그곳을 속칭 ‘칠덱말’이라 하였다. 찻집 가까이의 볼품없는 길 옆 바위에 ‘六花巖’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³¹⁾

8월 16일 신계사에서 만물상으로 유람을 떠난 김구하는 온정리 다리의 개통식을 목격하고 신작로로 육화암까지 갔다. 김구하는 이때 목격한 신식 다리가 ‘굉장하다’고 평하였다. 육화암은 만물상 유람을 시작하는 곳으로 외금강역, 고성역과 연결된 자동차도로가 신설되어 있었다. 김구하가 신작로라고 표현했던 길은 정기자동차가 운행되었던 도로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김구하는 금강산 주변의 개발과 화려함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

30) 1932년에는 ‘말휘리-세동’ 구간, ‘온정리-삼가리’ 구간, ‘세동-온정령’, ‘삼가리-육화암’ 구간, ‘내금강 장안사-말휘리-세동-온정령-외금강 온정리-삼일포 부근-신금강 부근 백천교’ 구간에 자동차도로가 개설되었다. 금강산 내부의 탐승로 또한 확충되었다. ‘사선교-비로봉’, ‘비로봉-구성동-봉전’, ‘비로봉-구룡연-비룡폭-옥류동-일광대-신계사-온정리’ 구간이 보도 탐승로로 연결되었다. ‘비로봉-월출봉-장군봉-채하봉-집선봉-발연교-발연소’, ‘내무재령-일출봉-월출봉’ 구간에도 보도 탐승로가 생겼다. 김지영, 「일제의 금강산국립공원 지정 논의로 본 ‘제2의 자연’으로서의 금강산 생산」, 『대한지리학회』 제56권 제3호, 2021, p.302.

31) 앞의 책, p.157.

록을 남겼다.

단발령역에 도착하자 멀리 금강산이 보이는 듯하더니 마침내 말휘리역을 지나 내금강역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원래 장안사 탑거리였으나 지금은 정거장이 되었다. 내금강역은 우리나라식의 단청을 찬란하게 하였으며, 온 마을은 불빛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 일본인이 경영하는 不知火 여관이 있고 금각관 이라는 공회당, 전철회가 사장인 久米民之助씨의 유골비가 있었으며 조선인이 경영하는 여관과 인가들도 몇 채 있었다. 자동차를 타고 장안동천으로 들어서니 좌우에 명산품을 파는 상점들,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여관과 호텔, 사진조합 등이 가득하다. 큰 길옆에는 노송나무, 측백나무, 소나무 등이 울창하였고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은 그지없이 희고 맑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맘껏 뽐내고 있었다.³²⁾

내금강역(內金剛驛)

금강산에 한번 감이 평생 소원이었어라	一入金剛願一生
푸른 눈길 닿는 곳 물과 구름 평화롭다	靑眸放落水雲平
장안사의 탑거리는 오랜 세월 흘렀기에	長安塔邃千秋月
역의 단청 화려함이 옥황상제 서울 같네	驛彩斌斌似玉京 ³³⁾

온정리(溫井里)

산골에 철기와집이 어찌 이다지 많은고	山谷何多鐵瓦家
금강산의 온천수는 널리 알려졌으니	金剛溫水擅名餘
마의태자 그 옛날에 발견했던 곳이요	太子麻衣發見地
경치 좋아 찾는 발길 끊이지 않는도다	探勝不絕踏烟霞 ³⁴⁾

이렇게 김구하는 금강산 주변이 변화한 거리로 변화한 것을 목격하고 기록을 남겼다. 김구하가 금강산전기철도로 금강산에 도착하자 내금

32) 위의 책, pp.31-32.

33) 위의 책, p.176.

34) 위의 책, p.202.

강역의 휘황한 모습과 역전 마을의 화려한 불빛이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내금강역은 장안사와 불과 2km 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 장안사 앞은 1927년 위락단지 건설이 계획되어 1931년 내금강역의 완공까지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감상은 고성역 주변도 마찬가지여서 ‘매우 화려하여 작은 서울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³⁵⁾ 총독부 철도국은 금강산 주변에 온정리호텔(1915), 장안사호텔(1918)을 건설하여 직영했고³⁶⁾ 여관, 안내조합, 상점 등 관광 관련 사업자들이 변화한 거리를 가득 채웠다. 김구하의 감상은 금강산 주변이 급격히 개발되어 자연의 풍광과 대비되는 도회적 경관으로 변화했음을 반영하였다.

김구하가 묘사한 금강산은 압도적 자연미와 오랜 불교역사의 성지로 속세와 거리가 먼 별천지이자 수행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관광지 개발과 세속화된 모습이 공존하던 곳이었다. 김구하의 기록에서는 이렇게 금강산이 지니고 있는 자연과 역사가 빚어낸 풍광, 그리고 당시 식민당국이 주도한 근대 관광지로서 개발이 맞물린 1930년대 금강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IV. 1932년 금강산 불교의 장면들

금강산은 고대부터 불교의 성지이자 최고의 유람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근대 관광안내서에서 금강산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원시적 자연경관으로 표상되었고 그러한 이미지의 일부로서 사찰이 묘사되었다. 즉 금강산 사찰은 이국적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고대로부터 변하지 않은 전통적 장소로 박제화 되어³⁷⁾ 금강산 관광코스에 포함

35) 위의 책, p.165.

36) 조성운, 『관광의 모더니즘』, 민속원, 2019, pp.46-79.

되었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제작한 금강산 관광 리플릿에는 일정에 따라 3-6개 사찰이 코스 안에 제시되었다.³⁸⁾ 내금강 여행에서는 장안사, 표훈사가 포함되었고 외금강 여행에서는 신계사가 필수코스로 안내되었다. 일정이 넉넉할 경우 정양사, 마하연, 유점사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금강산의 사찰들중 몇 개의 사찰만이 전형화된 관광코스에 포함되었으며, 당시 금강산 여행자들의 사찰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 인상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김구하는 금강산에 산재한 31개 사암을 방문하고 금강산 사찰들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생동하는 양태를 기록하였다. 금강산 불교에 대한 내용은 그의 기록 중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였다. 김구하는 자신이 승려였기 때문에 금강산 사찰과 승려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사찰을 방문하고는 반드시 사찰에 대한 정보와 감상,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 기록했다.

일제 강점기에 금강산 사찰들은 조선총독부가 불교를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30분산 체제에 편입되어 있었다. 유점사, 건봉사, 월정사 등 3개 사찰이 강원도 지역 사찰들을 통할하는 본산의 지위를 차지했다. 그중 관광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금강산의 본사는 유점사였다. <유점사본말사법>에 따르면 금강산의 모든 사찰들은 유점사를 중심으로 위계화 되었는데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는 유점사의 말사 중 가장 지위가 높은 별격지(別格地)로 분류되었다.³⁹⁾ 그리고 주요 사찰들은 각각의 산내 말사를 관리하고 있었다. 김구하는 본산 유점사와 별격지인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 그리고 표훈사 산내 말사인 정양사를 포함한 5개 사찰에 대해서는 사찰의 역사를 기술하고 전각, 보물, 부속암자 등의 목록을 별도로 소개하였다. 이들 5개 사찰에 대해서는 금강산을 대표하는 전통

37) 이경순, 「1930년대 중반 불교계의 『金剛山』 잡지 발간과 그 의의」, 『불교학연구』 51, 2017, pp.165-169.

38) <표 2> 참조

39) 금강대본산유점사종무소, 「楡岾寺本末寺法」, 『楡岾寺本末寺誌』, 1942, p.4.

사찰로서의 지위를 특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구하가 방문한 31개 사찰을 위치별, 본사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1932년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 중 방문한 사찰

방문 사찰	산내 본사	구분
장안사 지장암 안양암 영원암 도솔암터, 옥천암	장안사	내금강 (20곳)
표훈사 정양사 돈도암 청연암 신림암 선암 내원통암 수미암 보덕암 묘길상암 마하연사 불지암 만회암 백화암터	표훈사	
유점사 반야암 칠보대(근처 암자) 중내원암 용암 칠성암	유점사	
신계사 보광암 문수암 상운암 대성암	신계사	외금강 (11곳)
총 31개		

위의 표에서 김구하가 방문한 사찰을 지역별로 보면 내금강 지역의 사찰이 외금강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내금강에 대한 탐승이 더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내금강 지역에 사찰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만폭동, 진주담 등 내금강의 승경이 집중된 표훈사 주변에 대한 유람과 근방의 사찰 방문이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구하는 자신이 방문한 사찰에 대해 본인이 관찰하고 느낀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주요 사찰에 대한 주목되는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표 4〉 1932년 김구하가 방문한 주요 사찰에 대한 기록

사찰	김구하의 기록
장안사	근세에 또다시 퇴락하자 총독부에서 4만원을 출자하여 대웅보전, 범왕루, 해광전, 수정문 등을 중수하였다. 전각은 17동에 246칸이 있으며 새로 지은 집이 15칸이다. 대문 옆에는 우체국과 주재소가 있다.

	<p>장안사에는 옛날의 선원제도에 의거하여 수좌들이 좌선을 하고 있다. 공양과 예불은 대중 모두가 참여하여 한곳에서 행하지만 결혼을 하였거나 여관을 경영하는 승려는 예외로 하고 있다. 주지스님이 설명하였다. “萬川橋 바깥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지만 만천교 안에서는 禪規에 따라 행합니다.”</p>
표훈사	<p>표훈사로 들어가니 이전 주지인 최원허 화상과 추산 선객이 즐겁게 맞이해주었다.</p>
마하연사	<p>마하연사에 들어가니 주지 이화응 화상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옛날 건물은 모두 헐고 새로 오십아홉 칸의 큰 전각을 세웠는데, 실로 굉장하였다. 아마 사찰 한 동의 건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클 것이다.</p> <p>마하연사의 사찰 토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는 240여석에 이른다. 중건 공사비 총액은 1만2천원, 공사인부 총수는 1만2천명이었다. 경오년(1930)에 새로 거두어들이는 토지수입세가 170석이었다. 현 주지 이화응 선사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절 앞에 임시로 거처할 집을 지었는데 이 집 또한 계속 사용하고 있다.</p>
유점사	<p>5월 22일 아침 공양 후 중무소로 갔다. 「大本山楡岾寺宗務所」 간관은 惺堂의 필적이었고, 사무실 설비를 비롯하여 응접실·숙직실의 질서가 그야말로 대본산다웠다. 法務의 직책을 맡은 文昌晷의 안내로 淸茶를 마시고 의자에 앉아 유점사의 사적을 열람하였다.</p> <p>李混惺 주지가 있을 때 나무를 판 대금 만 여원으로 크게 사찰을 보수하였으나 부족하여 오히려 1만 2천여원의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주지 운악화상이 동척회사에서 돈을 빌려 사재를 대부분 정리하고, 1년에 두 차례 1천5백 원씩 십년 동안 동척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기로 하여, 지금은 절이 안정되었습니다.</p>
신계사	<p>신계사에 들어가니 海山 노스님의 앞방을 숙소로 정해 놓았다. 깨끗하게 정돈된 것이나 공양 등의 예절이 장안사나 표훈사보다 나았다.</p>
정양사	<p>절에 올라 누각에 들어가니 주인 없는 空堂에 객들만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기도 중이었다. 정양사의 명성은 비록 높지만 창으로는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벽도 허술한 데가 많았다. p.88</p>
안양암	<p>白性郁 박사가 안양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 보았더니, 청년 10여명을 데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大方廣佛華嚴經’을 암송하고 참선도 한다고 했다.</p>
백화암터	<p>白華庵 옛터에는 청허선사 등 고승의 진영을 모신 酬忠影閣과 승려들의 초막집 몇 채가 있었다.</p>
보덕암	<p>이 암자에는 매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그때는 서울에 사는 여사가 와서</p>

	기도하는 중이었다.
반야암	30여명 가량이 거주할 수 있는 암자. 그러나 절의 크기에 비해 사람이 적어 거의 비어있다.
중내원 암	유점사에서 20리가량 거리에 위치. 층암석벽 사이에 한 칸의 조그만한 집
칠보대 근방 암자	근래에 지은 이 암자는 오직 기도를 위해 지은 집으로 鞭牛, 正念 두 노비 구니가 그야말로 기도를 하다가 나와서 맞아주었다. 잠시 들어가 앉아 있자니 비가 오기 시작하여 멈추지 않았다. 조그만 방에 8, 9명이 함께 앉아 있기가 미안스럽게 지어졌다. 그러나 비구니의 손님맞이와 공양 접대 예절은 오히려 큰 사찰보다 더 훌륭하였다.
법기암 근방 토옥	설우화상이 말하였다. “李雲峰 선사가 입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좌선할 것을 결심하여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일단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면 토벽을 굳게 봉하여 버렸습니다. 대소변도 방 안의 한쪽 벽으로 내보내고, 문밖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답니다. 법기암 주지였던 비구니 林大願스님이 발원하여 스승과 제자가 교대로 음식을 가져와서 창 구멍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쌓여 길조차 찾기 어려우므로 장정 두 사람을 구하여 공양을 올렸는데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구하는 당시 금강산 주요 사찰의 사정을 상당량 기록했다. 김구하는 주지를 만나 환담을 나누면서 사찰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⁴⁰⁾ 그중에서 장안사는 내금강 관광이 시작되는 지점으로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은 사찰이었고 총독부의 정책적인 시설투자가 있었던 곳이다. 사찰 전각 수리 뿐 아니라⁴¹⁾ 관광객을 위한 각종 건물과 시설이 생

40) <표 5> 1932년 당시 금강산 주요 사찰 주지

사찰	주지명	주지임명 연도	비고
장안사	玄懿龍	1919년	『유점사본말사지』에서 확인
표훈사	朴圓應	1931년	
유점사	金雲岳	1931년	
신계사	崔高峰	1931년	
마하연사	李華應	1929년	

41) 장안사 전각 수리는 1926년 주지 현의룡이 청원하여 1927년 조사를 거쳐 1928년 본격적 공사가 시작되었고 1932년 공사가 완료되었다. 서효원, 「장안사 대웅전 보존 수리공사와 1930년대 금강산 개발」, 『건축역사

겨났는데 근방에 호텔과 산장이 건립되고, 김구하 기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찰 바로 옆에 우체국과 주재소와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유점사는 1926년에 사찰 대중들이 대처식육 금지와 유점사 소유 산림채벌 등을 문제 삼아 당시 주지 김일운(金一雲)에 대한 배척 운동을 벌였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⁴²⁾ 그로부터 6년 뒤 유점사를 찾은 김구하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김일운에 이어 주지가 된 이혼성(李混愷)까지⁴³⁾ 사찰의 보수와 산림채벌, 부채 문제가 지속되었는데, 당시 주지였던 김운악이 그러한 유점사의 현안을 상당부분 해결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칠보대 근방에 암자를 새로 짓고 기도하는 비구니들의 모습이나 법기암 근처에서 무문관 수행을 했다는 이운봉 선사의 행적을 인상 깊게 기술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김구하의 기록들은 당시 금강산내 사찰들의 사정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다양한 신행 활동을 전해준다.

한편, 김구하는 각 사찰을 방문하여 경내 정리정돈과 예절, 질서에 대해 관찰하고 비교하는 평을 남겼다. 이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본산주지를 역임하며 사찰을 살림을 맡았던 경험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점사의 사무실 설비 등이 ‘대본산다웠다’라던가, 신계사의 경내 정리와 공양 예절이 표훈사나 장안사보다 나았다고 평한 것, 그리고 정양사가 그 명성에 비해 허술하다고 기술한 점은 당시의 사찰들을 비교하며 관찰한 흥미로운 기술이다.

연구』 제29권 3호, 2020.6, pp.29-31.

42) 「頻發하는 宗教界의 不祥事, 楡岾寺에 住持排斥運動!」, 『매일신보』 1926.12.1.

43) 이혼성은 김정해, 이지광과 함께 불교계 최초의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중앙불교계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청년들의 불교유신운동을 비판하고 친일적 행보를 보였던 인물로 1927년에서 1931년까지 대본산 유점사 주지를 역임했다.

그런데 표훈사의 산내말사인 마하연에 대한 김구하의 기술은 1930년대 마하연의 위상 변화를 잘 보여준다. 표훈사의 산내 암자인 마하연은 주지 이화응(李華應)의 주도로 1932년 크게 중창되었다. 그 규모는 전국의 모든 선방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김구하는 새로 지어진 59칸의 전각을 보면서 ‘아마 사찰 한 동의 건물로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클 것 같다’고 했다.⁴⁴⁾ 김구하는 마하연의 경제력과 규모에 놀라면서 마하연의 중창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렇게 최대, 최고의 선방 반열에 오른 마하연은 이후에는 입방규칙을 제정하여 자격을 갖춘 납자만 결제 대중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규모가 커서 안거에 참여한 대중이 서로를 잘 모를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1939년에는 선리참구원이 개최한 수좌대회에서 마하연을 초참 지도 선원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⁴⁵⁾

이렇게 1930년대 마하연의 명성은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대표적 선방이 되었다. 해방 후까지도 대부분의 선승들은 마하연 수행을 선망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행처로 여겼다. 만공, 금오, 청담, 성철, 석주 등 근현대 한국의 고승들은 마하연에서 죽기를 각오한 치열한 수행을 이어갔다. 금강산 마하연은 왜색화 되어 간 일제강점기 조선불교의 풍토 속에서 불교의 정통성을 지킨 성지였다고 할 수 있다. 김구하는 그러한 명성이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다. 이화응의 마하연 중창에 대해 김구하는 다음과 같은 시로 찬탄했다.

마하연(摩訶衍)

고개 아래 평평한 곳에 마하연 있으니	領下一區在此中
암대 위의 법기보살 진공 법문 설하시네	岩臺法起說眞空
화응스님 화주되어 지극 정성 모았기에	華應化主誠心極
마하연사 중건하여 큰 총림 세웠도다	換算重新立大叢 ⁴⁶⁾

44) 『금강산관상록』, pp.73-75.

45) 김광식, 「선학원의 설립과 전개」, 『선문화연구』 창간호, 2006, p.296.

46) 앞의 책, p.202.

또한 김구하는 안양암에서 수행 중이던 백성욱(白性郁, 1897~1981)을 만나 그의 근황을 기록으로 남겼다. 백성욱은 독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25년 귀국한 후 경성에서 불교 교육, 언론계의 최고 인재로 활약하며 불교의 근대화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런데 1930년 5월, 돌연 경성을 떠나 금강산에 입산, 은둔하여 전통적 방식에 따른 수행에 매진했다. 백성욱은 장안사 말사인 안양암에서 3년과 지장암에서 7년, 도합 10년을 금강산에서 수행하였다. 이때 수행결사체를 구성하여 공동체 생활을 하였는데 10년간 백성욱의 지도를 받은 이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기도, 염불, 간경, 참선 수행을 하면서 노동을 하며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결사운동을 진행하였다.⁴⁷⁾ 김구하는 당시 금강산에 들어온 지 2년이 되는 백성욱을 만난 것이다. 청년 10여 명을 데리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염불과 참선수행을 병행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하고⁴⁸⁾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겨 칭송하였다.

안양암(安養庵)

명연담 위쪽에다 평화로운 정자 짓고	鳴淵潭上建安亭
백 박사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바쁘도다	白土於今養釣名
옷을 동여매고 대방광불화엄경을 외우니	衣着短周呼廣佛
깊고 얕음 모르지만 멀던 정이 기우누나	不知深淺遠傾情 ⁴⁹⁾

당시 불교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백성욱의 금강산 입산과 관련하여 김구하는 백성욱이 금강산에 은둔하였지만, 실상은 금강산에서 인재를 기르고 ‘대방광불화엄경’을 외우는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47) 김광식, 「백성욱의 금강산 수행 공동체의 역사와 성격」, 『민족사상』 15, 2021, pp.97-139. 이후 백성욱 박사는 동국대 총장을 역임하는 등 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지성인이자 교육자로 활약하였다.

48) 앞의 책, p.50.

49) 위의 책, p.186.

한편, 김구하의 기록에서는 금강산에도 불교 세속화의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판잣집이나 돌기와를 엮은 집들이 숲 사이로 보였다. 어떤 집들인지 물으니 대부분 다 스님들의 별장이라고 하였다. 조금 더 나아가니 山映旅館이 있었다. 들어가서 물으니 유점사의 崔泰園스님이 경영하는 여관이라고 하였다.⁵⁰⁾

<표4>에서 장안사의 기록을 보면 ‘결혼을 하였거나 여관을 경영하는 승려’라는 표현이 나온다. 김구하가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도 장안사 승려가 운영하는 여관이었고 유점사 앞 산영여관도 유점사 승려가 운영하는 여관이었다. 또한 유점사 앞에는 스님들의 별장이 숲 사이에 늘어선 ‘판자집이나 돌기와를 엮은 집들’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1930년대 초반에 금강산을 대표하는 장안사나 유점사 앞은 가정생활을 하는 대처승려, 여관 사업을 하는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14일, 추석이 다가오자 대중에게서 일원씩을 거두었다. 그 풍속을 보니, 14일 저녁 공양 시간에 각 불단에 불공을 올리고 시식까지 하여 마쳤으며 15일에는 평소 때와 다름없이 하였다. 추측하건대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 차례를 지내는 듯하다.⁵¹⁾

위의 기록은 추석 명절 때의 풍속을 보여주는데, 김구하는 신계사 승려들이 추석 전날 불공을 드리고 추석날에는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차례를 지내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1920년대부터 불교계에 확산되고 있었던 대처승의 실태를 보여준다.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승려들이 승적을 유지한 채 사찰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사찰 앞에

50) 위의 책, p.95.

51) 위의 책, p.141.

개인 집을 마련하고 별도의 직업을 갖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장안사 주지 현의룡은 대중이 모여서 하는 공양과 예불의 경우, 결혼을 하거나 여관경영을 하는 승려는 제외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장안사 경내와 밖을 나누는 만천교를 기준으로 안에서는 선규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만천교 안의 장안사 경내에서는 수행 전통을 지키고, 만천교 밖의 공간에 대해서는 개인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까지 경내에서는 전통적 불교 신행이 이어졌으며, 전통불교와 대처불교 사이의 긴장을 공간 분리를 통해 해소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김구하의 여행기록에는 새로 암자를 지어 기도하는 비구니, 부인선원(婦人禪院)의 입승을 맡은 비구니, 서울에서 기도하러 온 비구니 등 당시 금강산에 머물렀던 여러 비구니들의 치열한 수행 모습이 드러난다. 『유점사본말사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구니 전용암자는 5곳 정도다.⁵²⁾ 김구하의 기록에서도 표훈사 산내암자인 청련암, 신림암에 비구니들이 머물고 있다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⁵³⁾ 그 밖에 표훈사 문수암에도 비구니가 거주했고⁵⁴⁾ 유점사의 칠보대 근방에도 기도를 위한 비구니 암자가 새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⁵⁾ 근대에 들어서 비구니의 수행과 활동이 점차 표면화되었다는 점에서, 김구하의 기록은 그 실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김구하는 다양한 금강산 불교의 모습을 기록에 담았다. 그런데 김구하가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경성에서 도착해서 찾아간 곳은 조

52) 신계사의 미타암, 장안사의 중관음암, 하관음암, 표훈사의 청련암, 신림암을 말한다. 탁효정,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의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의 활동」, 『불교학연구』 70호, 2022, pp.34-40.

53) 앞의 책, p.91.

54) 위의 책, p.140.

55) 위의 책, p.115.

선총독부였다.

8월 27일 경성에 도착하여 총독부에 가서 사회과장 俞萬兼 씨를 만나 금강산의 경치와 사찰의 형편에 대해 여러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 오전 7시 40분 경부선 기차를 타고 내려와 영축산 통도사에 도착하니 때는 바로 壬申年 가을 구월 초하루였다.⁵⁶⁾

김구하가 총독부를 찾아가 만난 사람은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장이었다. 총독부 사회과는 1932년 2월 13일부로 내무국에서 학무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학무국 종교과와 합병된 부서였다.⁵⁷⁾ 1932년 8월경 총독부 사회과는 사회사업, 도서관, 박물관 등의 업무와 더불어 종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사찰과 보물, 고적, 명승을 관할하였다. 사회과와 종교과가 합병하여 학무국 사회과로 재편된 시점에 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유만겸(俞萬兼, 1889~1944)이었다. 유만겸은 유길준의 장남으로 도쿄제국대 졸업 후 줄곧 총독부 관료 생활을 한 인물이다.⁵⁸⁾ 유만겸은 1921년경 경남 서무과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통도사 주지였던 김구하와 안면을 익힌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김구하가 종교와 명승을 관할하는 총독부 사회과장을 찾아가 ‘금강산의 경치와 사찰의 형편’에 대해 보고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사적인 대화일까, 아니면 공적인 보고를 말한 것일까? 보고의 형식이었다면 김구하의 여행이 금강산 사찰 동향 파악을 위해 사전에 기획된 것이었을까? 지금 자세한 속사정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금강산 주변 철도 운영, 국립공원화 지정 논의 등 금강산 자체가 현안이었기 때문에 금강산 사찰

56) 위의 책, p.172.

57) 「總督府 社會科와 宗教科의 合併實施」, 『매일신보』 1932.2.15.

58) 유만겸은 일제강점기 말에 조선임전보국단 등 친일단체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42년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1404>.)

동향은 조선총독부의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이다. 또한 당시는 총독부의 보조금이 들어간 장안사의 전각 수리가 마무리되고 사찰 내 분류와 재정문제가 지속되었던 유점사가 안정을 찾던 시기였다. 한편, 신설된 기차역과 사찰이 자동차 도로로 바로 연결되어⁵⁹⁾ 사찰이 금강산 관광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부상하던 때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구하는 금강산 사찰들의 현황과 요구사항을 총독부에 전하러 했을 수 있다. 김구하는 비록 중앙 불교계와 본산 주지에서도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조선불교계의 명사급 인사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금강산 불교에 대한 견해를 당국에 표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김구하는 1910~1920년대 중앙 불교계의 리더이자, 대본산 통도사의 주지로서 오늘날 통도사의 위상을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구하는 근대 불교계의 중요 인물이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친일과 항일 행적 논란에 집중되어 있었고, 인물의 전 생애와 행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근대 금강산과 금강산 불교에 대한 중요한 목격자이자 기록자로서 김구하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다.

김구하가 여행을 떠난 1932년은 금강산 주변 철도가 완공되고 국립공원화 추진 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금강산에 대한 관심과 금강산 관광 열기가 높았던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김구하는 환갑을 맞은 기념으로 금강산 여행을 실행할 수 있었다. 김구하의 여행은 130여 일 동안 수행과 유람을 겸한 여정이었다. 김구하는 매일의 노정을 기록으로 남겨 『금강산관상록』을 책으로 엮었다. 1932년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기록은 다

59) 장안사와 신계사를 말한다.

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근대 승려의 대표적 금강산 여행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승려가 남긴 금강산 기록이 드문 상황에서 불교인의 여행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김구하의 여행기록이 칠언절구의 시와 함께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일기체 유람록의 형식을 따랐지만, 그 내용은 풍경에 대한 상투적 묘사를 넘어서 불교인의 주체적 시선으로 1932년 당대의 금강산의 실체를 다각도로 기술하였다.

둘째, 금강산의 관광개발을 생생히 기록하였다. 김구하가 여행한 1932년은 금강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바로 전 해에 철원에서 내금강역까지의 금강산 전기철도가 완공되던 해이다. 또한 비로봉을 통과하는 내외금강산 탐승로 등 금강산 내의 탐승로가 신설되고 자동차도로가 외금강 내부까지 연결되고 있던 시기였다. 김구하는 금강산 주변 장안사와 온정리를 중심으로 여관, 상점 등 건물이 도회지처럼 들어선 금강산의 변화된 모습과 철도와 신설된 탐승로를 이용한 감상 등을 충실히 남겼다.

셋째, 1930년대 초반 금강산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김구하의 기록에는 당시 금강산 주요 사찰의 인상적 모습, 마하연의 중창, 백성욱의 결사수행, 전통불교와 세속화된 불교가 병존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 금강산 비구니의 수행 등이 드러난다. 이러한 기록은 일제의 관광정책이 초래한 대중관광의 일개 코스나 고대의 유물로 취급받던 금강산 사찰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생동하는 금강산 불교를 보여준다.

김구하는 상세한 기록으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감회를 문장과 시로 표현하였다. 또한 과정에서 당시 금강산과 주변에 붙어 닦친 변화들과 금강산에서 살아 숨 쉬던 불교계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겨 1930년대 초반 금강산 불교의 모습을 전해주었다. 금강

산 공간의 근대 시기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김구하의 『금강산관상록』 중 여행일기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으로 『금강산관상록』의 구성과 편집은 물론이고 김구하의 시와 다른 이들의 차운시까지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동시대 금강산 불교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남긴다. 앞으로 역사 속 금강산 불교의 양태와 활동을 발굴하여 금강산 불교가 한국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영축총림 통도사, 『鷲山文集』, 1998.
- 영축총림 통도사, 『金剛山觀賞錄』, 성보문화재단연구원, 1998.
- 금강대본산유점사종무소, 『楡岾寺本末寺誌』, 1942.
- 『매일신보』, 1923~1935.
- 김광식, 「백성옥의 금강산 수행 공동체의 역사와 성격」, 『민족사상』 15, 2021.
- _____, 「구하 독립운동의 자료, 개요와 성격」, 『영축산의 구하 천보와 오대산의 한암 중원』, 한국불교학회 추계특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 김수아, 「일제강점기 근대한국불교를 위한 김구하의 개혁정신과 방향」, 『문학과 종교』 제22권 4호, 2017.
- 김지영, 「일제의 금강산국립공원 지정 논의로 본 ‘제2의 자연’으로서의 금강산 생산」, 『대한지리학회』 제56권 제3호, 2021.
- 박부원, 「금강산 歷史文化路 개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문화컨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이경순, 「조선후기 사족의 산수유람기에 나타난 승려 동원과 불교 전승 비판」, 『한국사상사학』 45, 2013.
- _____, 「1930년대 중반 불교계의 『金剛山』 잡지 발간과 그 의의」, 『불교학연구』 51, 2017.
- _____, 『금강산 가는 길: 조선총독부 철도국 발간 금강산 관광안내 지도 연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
- 정재정, 『철도와 근대서울』, 국학자료원, 2018.
- 조성운,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관광의 탄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2008.
- _____, 『관광의 모더니즘』, 민속원, 2019.
- 최두현, 「근대 통도사 승려들의 시문 창작과 그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제58집, 2021.
- 탁효정,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의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의 활동」, 『불교학연구』 70호, 2022.
-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집, 2011.

Abstract

Kim Gu-ha's Travel to Geumgang Mountain in 1932

Lee, Kyung-soon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Kim Gu-ha(1872-1965) was the chief monk of Tongdosa Temple and a leading figure in the Buddhist order in 1910-1920's. Kim Gu-ha was a major figure in modern buddhist history who is needed research on diverse perspective. Among the various writings left by Kim Gu-ha, I researched *Geumgangsang Gwansangrok*(『금강산관상록』), a travel record to Geumgang Mountain in 1932.

Kim Gu-ha's record covered 130 days that was a long-term diary travel record of Geumgang Mountain, and it vividly captured the travel process and the appearance of the Geumgang Buddhist temples from the perspective of a mature Buddhist in old age.

Kim Gu-ha wrote the appearance of infrastructure such as the electric train, newly established mountain roads, and transformation of villages around Geumgang Mountain. And also he recorded the impressive appearance of major temples, the reconstruction of Mahayeon and the practice of Baek Sung-wook in Geumgang Mountain in the early 1930s. In addition, he revealed the situation of traditional Buddhism and secularized Buddhism, and the practice of bhikkhuni of Geumgang Mountain. These records showed that Buddhism of Geumgang Mountain existed as a living Buddhism, dispelling the fixed images of temples in Geumgang Mountain.

Therefore, Kim Gu-ha's travel records can be said to be important historical sources for understanding the space transformation and

Buddhism of Geumgang Mountain in modern period.

Key words

Geumgang Mountain, Geumgang Mountain Buddhism, Kim Gu-ha,
Geumgang Mountain Buddhist temple, Geumgang Mountain Tourism,
Geumgangsán Gwansangrok

논문투고일 : '22. 05. 01. 심사완료일 : '22. 05. 25. 게재확정일 : '22. 05. 25.